

###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된 사구체신염에서의 RECOMBINANT HUMAN ALPHA INTERFERON 치료

울산 의대 내과, 해부 병리과\*

전두련, 양원석, 김순배, 유은실\*, 정영화, 이영상, 박정식, 홍창기

B형 간염바이러스와 연관된 사구체신염(HBV-GN)은 그 발병기전이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HBeAg이 그 발병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온 막성 사구체신염(MGN)에서 항바이러스제인 recombinant human alpha interferon( $\alpha$ -IFN)의 투여로 혈청 HBeAg의 소실과 함께 신증후군이 관해된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막중식성 사구체신염(MPGN)에서도 HBeAg이 그 발병기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BV-GN에 있어서  $\alpha$ -IFN의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HBV-GN 환자(혈청 HBsAg, HBeAg, HBV-DNA 양성이고, 간조직 생검상 만성 활동성 간염이 관찰되고, 다른 전신적 질환의 증거가 없는 환자로서 1일 요단백 1gram 이상이며 신조직 생검상 사구체신염) 6례를 대상으로  $\alpha$ -IFN을 1회 3백만 단위씩 주 3회 피하 주사하고 B형 간염 표식자 및 단백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44 \pm 6$ 세였다. 6례 중 5례(MPGN 3례, mesangium증식성 사구체신염(MesPGN) 2례)는 6개월간 본 치료를 받았고, 1례의 MGN은 2개월 치료 후 근육통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였다. 6개월간 치료받은 5례 중 4례에서 치료 시작  $3.8 \pm 2.2$ 개월에 혈청 HBeAg 및 HBV-DNA가 소실되고, 혈청 anti-HBe가 양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2례는 각각 치료도중과 치료 종결 5개월 후에 혈청 HBeAg 및 HBV-DNA가 다시 양성으로 전환되었다. 2개월간 치료받은 1례는 혈청 B형 간염 표식자의 변화가 없었다. MPGN 3례 모두에서 치료 도중 혈청 HBeAg이 음전되었으나 요단백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이 중 2례에서 시행한 치료 후 신생검에서도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MesPGN 2례에서는 치료 도중 1례에서만 혈청 HBeAg이 음전되었으나 2례 모두에서 요단백량은 감소되어 관해에 도달하였다. 2개월간 치료받은 MGN 1례에서 요단백량은 변화가 없었다.

이상에서 HBV-GN 중 MPGN과 MesPGN에서  $\alpha$ -IFN 치료에 수반한 혈청 HBeAg의 음전과 단백뇨의 소실 사이에 연관성은 없었다. HBV-GN에서  $\alpha$ -IFN의 virological 및 임상적 치료 효과는 일관성이 없으며 그 병리 형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 A30

#### B형 간염바이러스 (HBV) 양성인 사구체 신염환자에서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ACEi) 의 치료 효과

경희의대 내과

임천규, 정혜진, 고경식, 안재형, 이태원, 김명재

면역억제요법 (IST) 은 HBV 와 관련된 사구체신염에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ACEi 는 단백뇨를 줄이며 신질환 악화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1일 단백뇨 2.0 g 이상인 HBV 양성 환자 11명에서 ACEi인 captopril 을 투여하여 추적관찰한 후 단백뇨와 신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특히 조직병리학 소견상 IgA 신증을 보인 6명의 HBV 양성 환자에서의 결과를 단백뇨를 나타내어 IST 를 받은 17명의 특발성 IgA 신증환자들과 비교하였다. 평균 추적 기간은 18.6 (9-37)개월이었다. HBV 양성인 11명 환자에서 ACEi 투여전과 후 평균 동맥압은 각각  $113 \pm 32$  와  $97 \pm 11$  mmHg 이었고 혈청 크레아티닌은  $1.2 \pm 0.7$  과  $1.2 \pm 0.6$  mg/dl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청 크레아티닌은 대부분 환자에서 정상으로 유지되었으며, 1명에서는  $3.0 \rightarrow 1.7$  mg/dl 로 감소되었고 1명에서  $1.7 \rightarrow 2.6$  mg/dl 로 증가되었다. 1일 단백뇨는 추적관찰전  $6.9 \pm 5.8$  ( $2.0 \rightarrow 22.0$ ) 에서 후  $2.0 \pm 1.7$  ( $0.04 \rightarrow 5.5$ ) g 으로 감소되었고 ( $P < 0.01$ ), 혈청 알부민은  $3.2 \pm 0.8$  에서  $4.1 \pm 0.4$  g/dl 로 증가하였다 ( $P < 0.05$ ). 1일 단백뇨는 모든 환자에서 감소되었으며, 7명에서 3개월내에 50% 이상 감소되었고 추적관찰중 8명에서 1.5 g 이하로, 이중 3명에서는 0.5 g 이하로 감소되었다. 혈청 지질치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간기능검사는 1명의 만성활동성간염 환자에서만 비정상적으로 혈청 GPT 가 657 에서 126단위로 호전되었다. 특히 HBV 양성이며 조직병리소견상 IgA 신증환자 6명에서의 ACEi 치료 결과들은 IST를 받은 특발성 IgA 신증환자 17명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HBV 양성인 사구체신염, 특히 IgA 신증 환자들에서 ACEi 투여는 간에 해로운 영향 없이 단백뇨와 신질환 진행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더 많은 예에서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었다.